



비누

유럽인의 평균수명을
20년이나 연장시킨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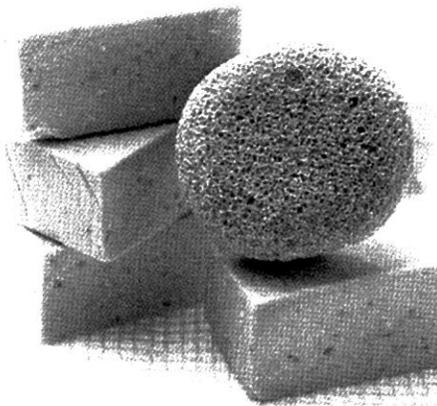
비누는 유럽인의 평균수명을 반세기 만에 20년이나 늘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발명이었다. 이 비누는 언제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비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이 산양기름과 나무의재를 끓여서 비누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또 고대 이집트의 경우 재와 기름을 섞어 손 씻는 약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비누제조는 동식물의 지방에 가성소다나 가성칼리를 반응시키는 방법 또는 목재를 태워 얻은 재의 칼리 등이 이용됐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부터이다. 200여 년 전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지 않아 매우 불결했고, 이로 인해 이질, 티푸스 같은 경구 전염병과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건강이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보니 평균수명은 40세 미만에 불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1790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르블랑(Nicolas Leblanc, 1742~1806)의 해수의 소금과 암염(巖鹽)을 원료로 소다를 양산하는 방법을 발명하면서 비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유럽인들을 괴롭혀온 갖가지 질병이 조금씩 사라졌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 녹두가루, 쌀겨, 쌀뜨물, 잿물 등을 세안제로 사용하였다.

한편 “더러움을 날려 보낸다.”는 뜻에서 이를 ‘비누’라 부른 것이 비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물에 뜨는 비누

버려진 원료에서 얻은 기발한 아이디어

물에 뜨는 비누는 일본에서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후지무라라는 여성에 의해 발명됐다. 그녀는 한 직공의 실수로 못쓰게 되어 버린 원료를 끈질기게 연구해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었다.

P&G사의 사장이었던 후지무라는 태국의 방콕을 여행하던 중 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강물에 가라앉은 비누를 찾느라 허우적대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를 본 후지무라는 물에 뜨는 비누가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비누공장이 많은 일본의 어느 지역,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직공들은 다 나가고 한 직공만이 큰 가마솥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소란스러움에 잠이 깬 직공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 버리고 말았다. 비누 원료가 그만 너무 끓어 솥에서 넘쳐 나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뒤 거품이 거칠게 일어나 쓸모없게 된 원료를 본 후지무라 사장은 비누가 불에 타지 않고, 거품을 내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여기서 착안, 목욕하다 비누를 강에 떨어뜨려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아이보리 비누’를 출시하여 성공을 거두게 된다.